

보도 시점 2026. 10. 27.(화) 15:00 배포 2026. 10. 27.(화) 13:30

청년의 꿈을 키우고 삶을 바꾸는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

- 권대영 1차관, 첫 현장행보로 SVC Seoul 입주 청년기업 방문 및 간담회 개최
- 삶의 토대인 3대 핵심 사회정책(주거·일자리·서민금융)에 대한 청년의견 청취
- 청년의 첫 출발 및 재도전, 자산 형성 등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

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10.27.(화) 14:00,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창업기업 지원 시설인 SVC Seoul*을 방문하여 대학생, 창업가, 직장인 등 다양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격의 없이 소통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* (Startup Venture Campus Seoul) AI·콘텐츠 등 창업기업의 초기 정착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지원하는 국내 최대 인큐베이팅 시설('26.5월 개소, 중기부·창업진흥원 운영)

** 참석자: (부처) 재경부 1차관, 경제구조개혁국장, 중기부 창업정책과장, 금융위 청년정책과장 등
(청년) 재경부 청년보좌역, 대학생, 청년인턴, 창업 청년, 직장인 등

이번 간담회는 권 차관의 첫 번째 현장행보로, 최근 이형일 경제부총리의 두 차례 청년 현장행보(10.12. K-뉴딜 아카데미, 10.23. 나라키움 영등포복합청사)에 이어 3대 핵심 사회정책(주거·일자리·서민금융)에 대한 청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.

권 차관은 먼저 SVC Seoul 입주기업 중 청년 창업기업들을 둘러보면서 AI 기반 주거지 탐색, 공공사업 검색·매칭 서비스 등 청년 기업의 서비스 시연을 참관하였다. 권 차관은 “새로운 아이디어에 AI 기술을 접목·창업한 청년들의 도전과 성과를 응원하고, 앞으로도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누구나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 및 재창업 분야 지원을 지속할 것”임을 언급하였다.

이어진 간담회에서 권 차관은 “청년은 그 어느 세대보다 뛰어난 역량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만,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의 벽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”며 “청년들의 삶의 기본 토대인 주거, 일자리, 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▲첫 취업 지원과 일 경험-취업 연계 강화, ▲AI시대에 부합하는 청년창업 지원체계 마련, ▲전·월세 가격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 경감, ▲사회 진출 초기 및 생애 전환기 대비 자산형성 등에 대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.

이에 대해 권 차관은 “정부는 내년도 청년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청년 성장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”고 하면서 “취·창업 등 첫 출발부터 안정적인 삶의 터전 마련,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자산으로 이어지는 자산형성까지 성장단계별로 세심하게 지원하겠다.”고 화답했다. 아울러 “정책은 만드는 것보다 현장에 제대로 배달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탁상 위 숫자가 아닌 청년의 삶이 바뀌는 효능감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생애주기형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 점검하겠다”고 밝혔다.

마지막으로 권 차관은 “사회 진입 초기, 실패 후 재도전, 장기 쉬었음, 지방 소외 등 취약 여건에 놓인 청년들에게는 더욱 두터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밝히며 “한번 넘어졌다고 낙인 속에 주저앉지 않도록 정부가 가장 어려운 곳에서 버팀목이 되고 다시 오를 수 있는 든든한 사다리가 되어 드리겠다.”고 강조하였다.

아울러 “오늘 들은 청년들의 소중한 의견은 정부가 청년정책을 수립할 때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최대한 반영하겠다”고 밝히며 간담회를 마무리하였다.

담당 부서	경제구조개혁국 청년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윤정 (044-215-8580)
		담당자	사무관	장현중 (smart84@korea.kr)
			사무관	심유정 (simyujung@korea.kr)
			주무관	김준영 (grayfaker@korea.kr)

참 고

'27년 주요 청년정책 달라지는 모습

* 출처: 「2027년 예산안」('26. 9. 1일 국무회의)

분 야	주요 내용	'26년	'27안
교육	인재양성 부트캠프	1.3만명	4.5만명
	AI 재도약 대학	—	2.0만명
일자리·창업	일경험·훈련·구직지원 등	56.4만명	72.2만명(+15.8만명)
	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(청년인센티브)	비수도권, 연 최대 360만원	전국 확대, 연 최대 900만원
자산 형성	우리아이자립펀드	—	출생~18세까지 적립
	청년기회자금	—	취·창업 준비기간 무이자 대출
	청년미래적금	0.7조원	1.7조원
주거 안정	공공임대 공급	7.1만호	10.6만호
	주거사다리 지원	183만 가구	235만 가구
		청년월세지원	요건 완화
		—	전월세결합보증
혼인· 출산· 양육	혼인	혼인세액공제	혼인지원금 (생애 1회 100만원)
	출산	출산·입양세액공제, 첫만남이용권, 부모급여	출산지원금 (1~2천만원(지방우대))
	양육	아동수당 (월 10~13만원)	아동기본수당 (월 20~30만원)
생활· 문화	청년문화예술패스	(대상) 19~20세, 생애 1회 (활용처) 공연·전사영화도서	(대상) 19~34세, 매년 (활용처) +체육